

어름호
2014. 08
NO.23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사랑

Special

개 식용, 이제는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생명존중 캠페인

돌고래 체험,
'교감' 이란 허울을 쓴 동물 학대

세상 읽기

조류의 유전자를 빼앗은 사람의 업보

견생역전

대한민국 누렁이의 희망
'극복이' 의 견생역전

올드독 동물기

개를 먹지 말아 주세요

CONTENTS

03 여는 글
링컨이 마차에서 내려 새끼돼지를 구조한 까닭은?

04 Special
개 식용, 이제는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16 현장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동물을 위해 투표하다

18 세상 읽기
조류의 유전자를 빼앗은 사람의 업보

20 생명존중 캠페인
돌고래 체험, '교감'이란 허울을 쓴 동물 학대

22 견생역전
대한민국 누렁이의 희망 '극복이'의 견생역전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양말을 만드는 그린블리스

25 입양해주세요
'똥꼬발랄'한 아기고양이 단테와 가족 되실 분?

26 생명 에세이
나는 모피를 참는다

28 활동소식
2014년 3월 ~ 2014년 8월

30 남양주 포토뉴스

31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32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2014. 여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4년 08월 18일 편집·진행 이기순 교정 박지숙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The조은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함께
나누는
삶
동물보호지

링컨이 마차에서 내려 새끼돼지를 구조한 까닭은?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미국 16대 대통령이었고 채식가로 알려진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 강기슭에서 어미 돼지가 물에 빠진 새끼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걸 발견한 링컨은, 마차를 급히 멈추게 하고 물에 빠진 새끼 돼지들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링컨의 친구가 ‘이 작은 사건이 자네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그런 수고를 하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이네. 내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을 그냥 지나쳤다면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나? 나는 마음의 평화라는 이익을 얻은 걸세.”

그렇습니다. 감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보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한 생명체가 호소하는 고통이 내 감정에 닿았을 때,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바람을 이성과 논리로 판단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희생되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개는 참으로 유별나게 인간과 밀접한 동물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개는 늘 인간 생활 영역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유기와 학대, 도살, 생체 실험 등)은 늘 논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은, 365일 내내 개 도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을 열어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간절히 집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논리와 이유를 동원해도 중국에는 찬반론자 사이의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의 현실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논쟁 점화에 따른 실익도 따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캠페인 홍보 전략의 빈약함입니다. 시민단체가 매년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캠페인을 기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엔 홍보 방법의 전문화와 비용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물단체들은 울여름에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며 개 식용 반대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의 임무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로 연민을 넓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인간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잔혹한 개 도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한 변화는 계속 되고, 그 끝 또한 반드시 옵니다. 동물과 더불어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Special 개 식용, 이제는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A photograph of a dog lying down behind a chain-link fence. The dog is mostly obscured by the fence, with only its head and front paws visible. The background is blurred, suggesting an outdoor setting. The text is overlaid o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고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변화는 옵니다.

스페인 투우, 프랑스 거위 간 요리, 일본의 고래잡이 등 전 세계적으로 전통을 빙자한 관습의 가면 뒤에 있는 뿌리 깊은 인간중심적 사고는 동물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은 투우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를 식용으로 인식하려 하는 습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신탕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개고기 시장의 메카 모란시장도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모란 시장 개들에게 봄은 올까?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2001년 6월, 생전 처음 가본 모란시장은 민속시장이 아닌 동물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아비규환의 장이었다. 모란역 5번 출구에서 100여 미터를 걸으면, 우측으로 평일엔 공용주차장으로 쓰이는 공간이 있다. 이곳이 5일에 한 번씩 민속시장이 서는 곳, 모란시장이다. 모란시장 입구엔 농작물, 온갖 생필품과 먹을거리가 늘어서 있고, 더 들어가면 크고 작은 개와 고양이부터 병아리, 오리, 토끼, 닭 등을 볼 수 있었다. 거기선 사람들이 박스에 담아 들고 나올 수 있는 온갖 동물들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땀방아 아래 노출되고 있었다. 한편엔 유기견인 듯 물골이 말이 아닌 개들이 폭염에 지친 모습으로 대기 중이었다. 이들조차 식용으로 거래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모란시장에선 민속 5일장 외에 365일 상시 매매가 가능한 상설 개 도살 시장이 성행하고 있었다. 누렁이들을 산 채로 전시하며 소비자가 원하면 즉석에서 도살하는 업소들이 250여 미터 정도 줄을 서 차려져 있었다. 업소들은 행인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고, 몇 집 건너마다 불에 그슬린 개의 사체를 통째로 전시하고 있었다. 민속 5일장이 서는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상설매장 건너편엔 무허가 개 도살장이 즐비했다. 그곳은 이른 새벽부터 각지에서 온 개들을 경매하는 장이기도 했다. 각오는 했지만, 처음 본 그곳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개고기'는 우리의 전통 식문화라는 사회 인식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다 2005년, 개 농장과 도살장, 개고기 판매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소, 돼지, 닭 도축장 조사도 실시했다. '개고기와 다른 고기는 무엇이 다를까'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한편으론 모란시장의 문제점 가운데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모란시장에서는 한때 반려동물이었던 개들과 종견장의 도태견들도 식용으로 도살하고 있었다. 이런 행위를 아무 규제 없이 방치하지 않고 그 고리를 끊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가축과 개, 무엇이 다를까?

소, 돼지, 닭이 죽임 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 개가 죽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죽임을 당하는 데 있어 고통의 무게가 덜한지 더한지를 계량할 순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때, 원치 않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공포와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도살 시 다루는 방식, 그 순간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했다. 소, 돼지, 닭의 종(種) 특성이 가축화된 이유 때문인지, 이 동물들에 비해 개의 운송·도축 과정은 훨씬 잔인했다. 이것은 단지 합법화로 인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 특성에 관한 문제였다.



철망에 담겨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개들

‘개는 소, 돼지, 닭보다도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훨씬 앞서 있다. 개들은 주인으로부터 살뜰한 보살핌을 받을수록 충직하고 다정한 성격이 발현되는데, 그와 반대로 인간과 정서교감을 나눌 기회가 차단된 채 비좁거나 몹시 짧은 줄에 묶여서 사육되는 개들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늑대, 코요테 등을 조상으로 둔 개들의 이러한 본성은 개는 축산업으로 사육·관리 될 수 없는 동물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중략) 개 도살장과 경매장에는 상처 입은 개들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낯선 무리들과 섞여 서로 싸웠기 때문이다. 개를 옮기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개들의 공격성을 제압하기 위하여 밧줄로 목을 강하게 조이거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는 등 가혹 행위가 행해진다. 개들을 운송할 때에는 좁은 철망에 여러 마리를 몰아넣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송 중 낯선 개들 사이의 싸움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듯 공격성이 있는 동물일수록 다루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가혹 행위들이 가해진다. 이런 행위들은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공격적인 동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면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량 축산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은 동물의 인도적인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곧 개 식용화 산업이 잔혹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도살의 법제화가 개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된다.’ - 조희경, ‘폭력을 기반으로 한 개 식용 산업’, 〈함께 나누는 삶〉 2008 여름호 중

이와 같이 가축으로 일반화돼 있는 소, 돼지, 닭 등과 개는 도살 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잔인성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타 다른 가축과 개에 차이를 두고 개의 경우만 강조하는 게 편한 일은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연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차이가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끊임없이 품었던 윤리적 고민은 ‘농장동물복지 캠페인’으로 정착됐다(동물자유연대의 농장동물복지 캠페인의 성과는 KBS 환경스페셜 ‘동물공장 2부작’의 탄생을 시작으로 각 언론에 농장동물복지 여론화에 성공했으며, 이후 정부는 축산물에 ‘농장동물복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으론 개 도살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며 ‘합법화되지 않은 도살’이라는 점을 들어 합법화의 위험성과 단절을 강조하는 전략을 폈다.



모란시장 앞에서 벌인 개 식용 반대 시위

모란시장, 한편의 변화

모란시장에서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한 가정의 반려견이었을 법한 요크셔테리어, 슈нау저, 시추, 코카스페니얼 같은 개들조차 도살되는 현상이었다. 모란시장 개 도살 상설매장 중에는 작은 개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케이지에 들어 있는 개들에 대해 물었더니 '애완견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허나 안쪽에서는 불에 그슬린 작은 체구의 개들이 칼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모란시장에서 범람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건, 그것이 2006년 1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의 실태였기 때문이다.

모란시장이 서는 날이면, 유기견 같기도 하고 종전장의 도태견 같기도 한 개들이 몇 트럭씩 밀려나왔다. 그 중 몇은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선택돼 가정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운 나쁜 개들은 도살 업소로 넘겨졌다. 보다 못해 시장 상인과 떡살잡이 하듯 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다. 더 이상 어찌할 근거가 없다는 자괴감과 그들에 대한 분노는, 결국 '너희들을 반드시 이 모란시장에서 퇴출시킨다'라는 강한 동기를 불러 일으켰다.

2003년부터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썼다. 1991년 첫 제정 이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벌금이 고작 20만 원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은, 12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았다. 처벌은 고사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처벌 기준도 모호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만 담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힘쓰는 한편, 그 내용에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포함시켰다.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분양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 군, 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후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려동물을 함부로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했고, 작은 애완견들마저도 식용 도살되는 현장을 보면서도 내세울 법적 잣대가 없어 뼈에 사무쳤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 노력이었다.

'동물판매업 등록제'는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동물보호법 안에 포함됐던 규정인데, 2006년 6월에 영국의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며칠 사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한 상태였다. 눈앞이 캄캄

해졌지만 굴하지 않고 그 즉시 농림부로 달려가 담당자와 담판을 했다. 아마도 관련업 종사자들의 압박을 받은 듯했다. 최종적으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보호법을 국회의원안으로 발의할 때에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포함시키면 정부가 그 조항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주기로 약속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과 국회의원 발의안들이 국회에서 병합 후 최종 정리됐는데, 당시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은 한나라당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에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포함됐고 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영됐다.

이로써 모란시장에서 작은 개들을 전문으로 도살하는 업소는 문을 닫았다.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생겼고, 위반 시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유기견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부과하는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개 도살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입법에 내밀지 못했다. 이 규정은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고개를 돌린다. 대화의 시도조차 단절되기 일쑤다. 그러나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오랜 기간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다시 찾은 모란시장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모란시장을 찾지 않았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온갖 도축장을 조사 다닌 경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간간이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2014년의 모란시장 일대는 변해 있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여수사거리에서 성남 인터체인지를 지나 단천 방향으로 '성남여수지구'가 구획돼, 상설 매장앞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무허가 개 도살 및 거래 업소들 거의가 철거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택지지구로 구획된다고 했었고, 2007년 당시부터 상인들의 저항이 느껴지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리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현실로 마주하는 순간을 맞는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한 때는 전국 개고기 물동량의 30%를 좌지우지하던 모란시장 아니었던가?

LH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LH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철거 시도를 했고 2016년 말에 택지준공사업을 완료시킨다고 했다. 현재는 2개의 축사가 남아 있지만 올 가을 안에 모두 철수시키는 데 합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영업 보상을 받고 나갔다. 그런 탓에 상설시장에 있는 개 도살 업소들 안쪽엔 개들을 가두는 케이지가 예전보다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건너편 축사가 철거됐으니 개들을 업소 안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다. 개들에겐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좁은 공간이다.

모란시장 상인회장을 만났다. 과거와 현재의 식용 개 판매 상황과 유통 가격을 물었다. 가격은 2005~2008년에 조사했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가 대비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소비량과도 관계된다. 비싸면 안 먹는다는 인식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 개 도살 시장이었다. 물동량을 물었다. 한창 때는 개를 실은 트럭이 100~120대가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10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물론 물동량이 준 것에는 건너편 무허가 축사들이 철거된 영향도 있겠지만, 개고기 유통량 자체가 3년 전에 비해 50% 감소했다고 한다. 경기 불황과 더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안 먹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했다. 상인 회장과 대화에서, 모란시장이 사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상설 개 도살 시장이 있는 건물들은 개인 소유의 합법적 건물이지만, 모란역과 태평역 일대에 공동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및 공원이 들어서기로 기획된 이상 혐오 시설인 개 시장의 존재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인회장은 이에 대비하는 여러 구상을 던지시 밝혔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했다.

모란시장은 그렇게 역사의 뒷안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그리고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명을 잠재우며.

“어차피 잡아먹을 건데 무슨 상관인가?”

글 채희경 활동가

2014년 1월 영하의 찬바람 불던 어느 날,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축사에서 처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람 막을 벽도 없는 곳에 밥그릇, 물그릇이 텅 빈 채로 개 10여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반가운 건지 배고픔을 벗어나려는 건지 개들은 필사적으로 찾아댔습니다. 그 사이로 누워 있는 개들이 보였습니다. 추위, 배고픔을 못 견뎌 결국 세상을 떠난 개들이었습니다. 몇몇 개 사체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다른 개들이 뜯어 먹은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개들이 느꼈을 공포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을 것입니다.



기운 없이 서 있는 개 뒤로 텅 빈 밥그릇, 물그릇과 같이 방치된 굶어죽은 개 사체

‘개 식용’이 동물 방치와 학대를 조장한다

굶어 죽은 개 사체까지 방치된 축사에 남겨진, 같은 운명에 처한 개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 시청, 경찰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실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경찰의 답변은 ‘도와줄 것이 없다’였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신고 받은 경찰이 무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는 등 학대당한 동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자로부터 격리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축사 개들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급히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순 없었을까요? 앞서 시청과 경찰의 대답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불가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격리 보호 조치 대상은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방치되어 굶주리는 동물은, 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방치’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상해보다 더 잔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내 앞에 바짝 마른 물그릇뿐이라면 상해를 입는 고통보다 나올 게 없겠죠. 숨을 곳 없이 땀 뚝뚝 철창에 갇혀 이불 한 조

각 없이 영하의 칼바람을 맞고 있어야 하는 고통은 또 어떨까요.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엄습하는 피부병이 온 몸에 퍼져 있는데 묶여져, 다리 한 쪽이 부러진 채로 방치되어, 상처가 썩어가는 언젠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하는 것,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가혹한, 방치에 의한 학대입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인도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욕심, 경제 논리만 앞세워 생명조차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물건 이상으로 보지 않는 천박한 생각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 식용이 있습니다. 개가 그저 '음식'으로 보이는데, 생명에 대한 배려가 가능할까요? 개를 오토바이에 묶고 도로를 질주해 개의 온 몸에 상처를 냈던 사건의 가해자가,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 개는 어차피 먹으려고 가져가는 건데 좀 다친다고 대수냐'라고 대답해 분노를 샀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이라는 논리 뒤에 숨어 다른 생명의 고통을 당연시하니, 그 과정에서 방치된 동물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린 아프간하운드와 철창에 갇힌 개들

법률로 규제하게 된 '방치에 의한 학대'

동물자유연대는 방치의 심각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고 2014년 6월, 드디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치와 학대에 관한,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간 없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치가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대 받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하며, 학대자가 동물의 소유주일 경우엔 소유권을 포기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입니다. 나아가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엄중 처벌하도록 형량도 무겁게 했습니다(표 1 참조).

<표 1>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법안	현행	개정안
방치에 의한 학대	각 지자체 담당자가 관리와 치료에 관하여 권고 조치 (강제 조치 없음)	방치에 의해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 형사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처벌)
학대당한 동물의 소유권	3일 이상 격리 보호 후 소유주에게 반환 (소유권 박탈 불가능)	격리 보호 조치 후 소유권 강제 양도 청구 가능
학대 행위에 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 사항은 '학대자에게 학대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할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학대자의 상당수는 반려인입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며 '내 것 내 맘대로 하는 데 무슨 상관'이라며 반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겐 기본적인 생명 존중,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으로는 소유권을 가진 학대자가 처벌을 받아도, 학대 받은 동물을 강제로 격리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합니다. 3일 뒤에는 다시 학대했던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엔 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 중 하나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 목적에 좀 더 부합해 앞으로는 단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생명을 그저 지켜보게만 되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개를 먹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인터뷰 · 정리 이기순 활동가

사회 여론을 이끌어 간다는 인사들에게도 ‘개고기’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대부분은 ‘개고기를 먹지 않고, 개 식용에 반대한다’ 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꺼린다.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를 먹는 건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강의와 저술로 당당하게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다. 최훈 강원대학교 교양과정 교수는 동물을 고통스럽게 키우고 죽여 얻은 고기는 비윤리적이므로,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삼겹살이나 치맥을 먹으면서 개고기만 반대해서야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날린다. 그를 만나 개 식용 문제뿐 아니라 육식주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동물자유연대 초복 토크 콘서트 이후 처음 뵙네요. 그 날 발표의 키워드도, 선생님의 저서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의 키워드도 '윤리'입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윤리의 기본은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죠. 고대 그리스에선 '다른 사람'에 '자유인인 성인 남자'만 포함됐고, 서양의 역사에서는 '백인 남성'만 포함됐던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에는 노비나 여자는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가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 넓어져야 할까요? 그 넓이의 기준을 정하는 선은 간단합니다. 피해를 끼쳤을 때 싫어하는 존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기 싫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즉 역지사지가 윤리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때리면 아파하고, 싫어합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고요. 그러나 동물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동물을 인간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겠다고 참정권을 주거나 교육 받을 권리를 존중해서 학교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니까요. 동물이 가지는 고유의 습성과 본능을 존중하고, 이유 없이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채식'을 주장하며, 실천 중이시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죽이는 것은 '피해를 끼쳐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동물을 죽여 얻은 고기 이외엔 먹을 게 없다면, 그래서 고기 없이는 우리가 죽는다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고기를 먹는 건 자연스럽고, 육식은 수천 년 내려온 문화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수천 년 먹어도 지금

처럼 많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게 먹었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동물을 소규모로 풀어 키웠을 때도 도살할 때는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나았죠. 요즘 우리는 고기를 싸게, 또 많이 먹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동물은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느끼고 죽을 때도 고통을 느낍니다. 비좁은 환경에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그러니 현재로선, 육식은 비윤리적입니다.

고기 먹는 동물자유연대 회원은 뜨끔하시겠는데요(웃음). 저희 회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육식을 하고 있고, 육식에 찬성하면서도 개를 먹는 것에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는 특별하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는'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이 주장이 전략적·윤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개 식용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개부터 먹지 말고, 점차 다른 동물에게까지 윤리 실천을 넓히자는 말이지요. 기존의 공장식 축산 대상 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도 점점 높아져 가는 게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을 합법화하자고 나서거나, 개고기를 인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 하는 것은 '피해를 끼쳐선 안 될 타자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개 식용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 '개는 우리랑 친하니까'라는 게 있죠. 동물자유연대의 작년 캠페인 모토였던 '모든 개는 반려견입니다'도 이 맥락인데, '나는 닭을 혹은 돼지를 애용으로 키운다'는 식의 무책임한 반박을 많이 받지만, 잘 다 들어서 사용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개가 사람과 친한 이유는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먹기 위한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는 생각은, '흑인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생각 만큼이나 비윤리적이다.

견 개의 지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굳이 동물학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더라도 개는 우리가 자주 접하고 같이 생활해 온 동물이니, 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동물에 비해 개가 느끼는 고통이 매우 심할 거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견 중 차별이 아니라, 동물 간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를 먹는 것은 다른 동물을 먹는 것에 비해 더 비윤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삼겹살에 '차백'을 즐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개고기만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웃음)?

‘식용견은 따로 있지 않느냐, 개를 먹는 것은 우리의 고유문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개는 다 같은 겁니다. 종 차별도 비윤리적인데, 같은 종 안에서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나누는 건, '흑인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생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신탕이 전통이고, 전통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

당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과 반대되는 예를 찾기도 아주 쉽습니다. 고려장이나 노비 제도를 지금도 존중해야 하는 우리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이라고 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이유 없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지키고자 할 때, 문화 상대주의를 들어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행해지는 여성 할례, 파키스탄 등에서 일어나는 명예살인을 '이유' 있다고 동의하며 용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행위는 비윤리적인, 더 이상 행하면 안 되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옛날부터 해왔으니 지금도 해도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따져봐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 식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젊은 이 중에도 많다고 해요. 대학 강의와 대중 강연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개 식용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



현대 인류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공장식 축산을 통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기를 대량 생산해 먹고 있다.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개 식용 문제에 한해서는 많이 변했다고,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보신탕 끓여먹는 일이 흔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고기를 먹으려면 일부러 찾아가야 하고, 그 많은 맛집 소개 블로그 중에 보신탕 소개하는 블로그는 아마 거의 없을 걸요?

작년에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물어봤더니 절반이 넘는 학생이 개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대답은 그렇게 했어도 그 아이들이 정말 개를 먹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답만 그렇게 한 거고,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인간의 윤리는 발전하니까요.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는 몰라도, 개고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웃음),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기기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이런

노력을 더해 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잘 하고 계셔서,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제가 직업 운동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제가 고민한 바를 나누자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쉬운 부분을 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성을 자극하거나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끔찍한 개 사육 실태, 개고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 도살 과정의 잔인함을 꾸준히 알려 주세요.

개 식용에 대한 연구나 통계 자료가 없다는 건 좀 놀랍고, 아쉽습니다. 감으로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자유연대에서 개 식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동물을 위해 투표하다

글 이형주 팀장

지난 6월 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 아닌 '동물'이다. 아마 이번 선거처럼 출마 후보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동물복지'가 화두가 된 선거는 그간 없었을 것이다. '동물을 위해 투표한' 6·4 지방선거를 되짚어 본다.



'생명과 생태계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고 온전히 지키자'는 취지로 환경, 동물, 지역, 풀뿌리 단체 131개가 모여 발족한 '초록연대' 발족식 현장

선거, 동물복지를 알리는 캠페인이 되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유권자인 시민 모두 '동물복지' 문제를 교육이나 경제, 복지과 마찬가지로 중요 사회 현안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출마 후보자들이 동물 보호 의식 확산과 동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공약에 직접 반영해, 당선 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동물을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동물 보호에 의지를 보이는 후보를 판별해 투표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운동 - 2014 초록연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운동 - 2014 초록연대'였다. 초록연대는 '생명과 생태계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고 온전히 지키자'는 취지로 환경, 동물, 지역, 풀뿌리 단체 131개가 모여 발족했다. 그 중 동물자유연대는 공동대표 역할과 동물복지정책 제안·후보를 담당하며 활동을 주도했다. 원전, 화학독성, 미세먼

지, 안전한 식품, 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아울러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로 삼았고, 7개 과제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장에게 제안할 공약을 만들었다. 제안한 동물복지 공약으로는 ‘동물 보호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동물복지 축산 지원 제도 마련’, ‘공영동물원 시설 보안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있다. 교육감 후보에게는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 보호 의식을 기르는 생명 존중 교육’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그 결과로 5개 정당과 4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의 교육감 후보가 정책 협약식을 갖고, 제안 과제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초록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성과를 얻었다.

‘동물을 위한 약속’, 동물복지 정책을 내건 후보들

동물자유연대는 초록연대 활동과는 별도로, 서울·부산·경기 지역의 지역 현안에 맞춘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서울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양당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 후보만 참석해 정책 비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토론회 이후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동물복지 정책’을 10대 복지 정책의 하나로 내놓았다. 초록연대와 함께 정책 약속 운동에 참여한 ‘초록 후보’인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초록연대 정책 협약식과는 별도로, 동물자유연대가 경기도의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불법 반려동물 생산업의 관리·단속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도 부산 시장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부산시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생명’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도 협약식을 갖고 동물 보호 교육 실시와 교재 개발, 반려 동물 책임성 교육, 동물 체험 관람 지역, 주 1회 채식 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위한 노력을 약속받았다.

‘개고기 포장육, 선거운동용 말 마차...’ 시대에 뒤떨어진 후보들

한편 선거 기간 중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과 행동으로 빈축을 산 후보들도 있었다. 이천시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는 이천시 육견협회 단합대회에서 ‘개고기를 포장육으로 상품화해 일반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되

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각 후보 사무실에 발언의 공식 취소를 서면 요구했고, 많은 시민도 강력 항의했다. 성남시에서 출마한 한 시의원 후보는 선거 포스터를 부착한 마차를 말에게 끌게 해 많은 주민들을 분개케 만들었다. 해당 후보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중단 요청에도 고집스럽게 말 마차 운행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아직 갈 길이 먼 현실을 실감하게 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선거 결과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은 후보가 당선된 경우도 있고, 아쉽게 낙마한 후보도 있다. 서울시 당선자 박원순 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2020년까지 실행을 목표 삼은 동물복지 계획을 발표했고, 동물자유연대는 세부 내용에 대한 점검·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보완할 점과 효율적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라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정부, 민간단체, 시민들이 함께 완성시켜야 할 숙제다.

이번 선거는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동물복지를 정치인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일부 감정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로 축소 평가되었던 동물 보호와 복지가, 이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이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요소라는 걸 시민뿐 아닌 정치인, 정당까지 인지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이다. 동물복지 공약이 선거 전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정치인의 적극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시민 감사가 필수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정책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 정책을 시민과 정부가 같이 개발·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장 외에도 고양, 남양주, 성남, 아산의 시장 후보들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와 TNR사업 확대 실시, 반려 동물 공원과 산책로 설치 등 다양한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조류의 유전자를 빼앗은 사람의 업보

글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예전에는 없었을까. 2000년대 이전을 생각해보자. 과로로 현장 공무원이 죽어갈 정도로, 수많은 가축을 빠른 시간에 죽이는 '살처분'은 도무지 기억에 없다. 관련 바이러스가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다지만, 예전에도 독감은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존재

도 마찬가지로일 텐데, 그 바이러스가 하필 왜 요즘 극성일까. 또 왜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계장에서 저병원성 검출 시엔 반경 300m, 고병원성일 땐 그 10배인 3km 내의 안전 반경 속 멀쩡한 닭, 오리, 메추리까지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걸까.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독감에 걸리는 닭과 오리와 메추리들

은 대부분 맥없이 죽을까.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보니 감염된 양계장이 처참하다. 양계장 안의 닭들 거개가 죽어 널브러진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모두 죽은 건 아니다. 사체들 사이를 경중경중 뛰며 카메라와 기자를 피하는 닭들도 적지 않다. 그 닭들은 어쩌면 조류독감을 이겨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조리 죽임당하고 만다.

땅을 파헤치며 마당을 돌아다니던 닭들도 조류독감에 걸린 곤 할 텐데, 때로 죽는 일은 없었다. 이미 허약해진 사람이 이따금 독감으로 사망하듯, 조류독감에 걸린 닭의 일부도 꾸벅꾸벅 졸다 죽었겠지만 나머지는 이내 건강을 찾았다. 훨씬 많은 닭들은 아예 감염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닭과 오리에게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전한 악당으로 취급받고 있는 철새들도 마찬가지다. 조류독감에 감염돼 기력을 잃은 철새는 머나먼 길을 날아오는 도중에 떨어졌을 테고, 날아서 한국에 도착한 철새들은 갯벌이나 호수에 내려앉아 이것저것 먹으며 배설할 것이다. 그러다 질병도 나눌 테지만 대부분 견뎌내어 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극히 일부가 죽었고, 그 사체를 수거한 전문가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했을 것이다.

마당에서 키운 닭들은 서로 쪼면서 서열을 정하고, 흙을 파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마음이 닿는 암수가 자유롭게 짝짓기를 해왔다. 닭이 가축으로 길들여진 이후 수천 년 동안 그래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비록 어둠컴컴하더라도 불이 들어오면 사료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비좁아 부대끼지던정 노상 따뜻한 축사에서 조상이 물려준 천명을 누리는 삶을 닭과 오리와 메추리는 절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존엄성 있는 생명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고기가 될 살을 빨리 불리거나 알을 많이 낳는 기계에 불과한 모습으로 산다.

닭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부화되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져 질식해 죽는 수평아리는 대상에 끼지 못하니 빠자. 죽어라고 부정란만 낳는 많은 암탉과 유정란을 낳는 암탉이 적은 수로 있고, 유정란을 낳는 암탉이랑 죽어라고 짝짓기만 해야 하는 선택받은 극히 일부의 수탉이 있다. 그리고는 고기용으로 부화기에서 부화돼, 도축 때까지 죽어라고 몸집을 키워야 하는 병아리가 나머지 대부분이다.

통닭용과 삼계탕용은 엄격하게 분리돼 무지막지하게 사육된다. 통닭용은 생후 4주 만에 죽어야 하는 삼계탕용보다 2주 정도 더 살지만 아직 병아리에 불과하다. 샐러드에 넣는 닭 가슴살이 되기 위해 고작 7주를 살 수 있는 미국 닭은 어떤가. 조그맣던 병아리가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사람으로 따지면 생후 1년 정도 기간 만에 몸무게가 200kg에 달하게 된다는 얘기다(물론 그 전에 죽겠지만 이론상 그렇다). 가슴살이 하도 빨리 비대해져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도축장에 갈 시간이 되면 양계장은 커다란 병아리들로 가득 차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이는데, 그곳 병아리들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거의 같다. 사람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도록 극단적으로 품종을 개량한 탓에, 조상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을 거의 잃은 것이다. 그 결과 닭과 오리들은 환경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질병을 이겨낼 면역이 아주 취약해졌다. 따라서 외부와 차단된 축사는 일정하게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사료, 항생제, 호르몬과 같은 사육 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태풍으로 문짝이 떨어져 나가거나 눈으로 지붕이 무너지고 우박으로 뚫리는 날이면 양계장은 조류독감에 감염된 때보다 더 처참해진다.

사람들의 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대한 양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닭고기 가공은 기계가 맡았다. 하루에 100만 마리 이상을 처리하는 닭고기 가공공장의 정교한 기계는 오차 범위가 좁다. 들쭉날쭉한 닭 상태 때문에 값비싼 기계를 고장낸 양계장은 고객을 잃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삼계탕 뚝배기는 크기가 한결같다. 뚝배기에 들어가는 닭이 제각각이라면 같은 값을 내는 손님들이 달가워할 리 없을 테니까. 그런 식당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야 조류독감이 줄어들까. 정답은 뻔하다. 지금처럼 계란과 살코기를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한 줄어들 리 없다. 조류독감을 알지 못했던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서 닭과 오리와 메추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면 살 처분이 사라지고 철새를 원망하지 않게 되겠지. 사람들의 탐욕이 줄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다. 조류독감만이 아니다. 구제역과 광우병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물적·정신적 파탄을 안긴다. 부메랑이다.

돌고래 체험, ‘교감’이란 허울을 쓴 동물 학대

글 이형주 팀장

제들이가 바다로 돌아가고 난 뒤, ‘동물을 훈련시켜 재주를 부리게 하는 동물공원이 비인도적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전보다는 확산되었다.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한국사람의 59%가 ‘돌고래 쇼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시민 의식의 성장에는, 지난 수년간 동물을 이용한 전시·공연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의 활동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돌고래 포획·전시 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를 감지한 전시업체들이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 바로 ‘돌고래 체험’이다. 돌고래 만지기, 먹이주기, 키스하기, 껴안 기 체험부터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다이빙하기, 심지어 돌고래와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돌고래 힐링 타임’이나 임신 부와 돌고래가 같은 수조에 들어가 교감하는 ‘돌고래 태교’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내놓고 있다. 체험료는 1회 최소 6~7만 원에서 많 게는 수십만 원에 이른다. ‘거제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제주도 ‘마린파크’ 등이 체험장이란 이름을 내걸고 운영 중이다. 업체 들은 ‘돌고래 체험은 공연처럼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므로 인도적이고, 관람객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관람이 아닌 교감이다’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관람객이 체험하는 것은 ‘동물학대’

고속으로 넓은 바다를 이동하고 먹이를 쫓아 사냥하는 본능을 충족 시킬 수 없는 돌고래들은 좁은 수족관 속에서 지속적인 신체적·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돌고래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만지게 하고, 일방적으로 복종적인 자세를

강요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돌고래는 무리 안에서 복잡한 사회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을 가진 동물로, 그 사회 집단 안에는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 관람객이 일방 적으로 돌고래에게 복종적인 자세만을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환경에 서 돌고래의 정신적 균형은 깨어진다. 결국 전시 시설 내 돌고래들끼

리의 위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강한 돌고래가 약한 돌고래를 공격하고 다치게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먹이주기 체험의 경우, 관람객 수가 일정치 않으니 먹이의 양을 조절하기 힘들고, 관람객의 손길에 먹이가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부서져서 가시가 노출된 생선을 먹었을 땐 돌고래의 소화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돌고래의 안전과 복지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됐다. 만지기 체험의 경우, 1회당 1시간 가까이 조련사가 돌고래의 꼬리지느러미를 인위적으로 붙잡아 고정시킨 뒤, 5~6명의 관람객에게 돌고래의 피부를 손으로 만지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런 체험이 하루에 5~6회 운영되는 점을 본다면, 돌고래는 하루 5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신체를 구속당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촬영한 영상을 돌고래 생태학자 나오미 로즈(Naomi Rose)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더니, '이렇게 돌고래를 손으로 붙잡아두는 전시형태는 처음 보았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돌고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운동성이 강한 돌고래를 장시간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한 상태로 여러 사람들에게 만지도록 하는 것은 돌고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신체적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돌고래 체험에 대한 복지·안전 기준은 다른 동물 전시 기준에 비해 미비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사육과 전시 형태는 세계 어떤 나라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로즈 박사의 의견이었다.

인명사고와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

돌고래 체험은 돌고래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상층부에 있는 상위 포식자다. 감금과 전사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돌고래는,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낸다. 어린이들이 돌고래의 눈이나 분수공 등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것도 공격의 원인이 된다.

서양에서 돌고래 체험이 1980년대에 잠시 인기를 끌다 사라지던 이유는 돌고래의 복지문제와 함께 잇따라 발생하는 인명 사고 때문이었다. 미국 해양수산부(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돌고래와 수영하기'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열상이나 골절부터 쇼크까지 다양한 사고가 있었으며, 학자들은 이 사고들이 일어난 건 '돌고래가 의도적으로 공격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돌고래가 특별한 공격 성향을 보이지 않더라도, 200kg이 넘는 돌고래가 사람 위로 떨어지거나 날카로

운 이빨로 사람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큰 부상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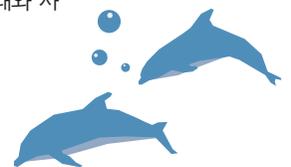
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와 사람이 접촉할 경우 서로 인수공통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주로 감염되는 병으로는 허피스 바이러스, 폭스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세균성 피부염, 마이크로 플라즈마균이나 그람 양성균에 대한 염증 등이 있다.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폐사 사실을 숨긴 채 화단에 묻었던 돌고래의 사인도 '돼지단독(swine erysipelas)'이라는 돼지의 열성 전염병으로 밝혀졌다. 돼지단독균은 돼지 외에도 다른 포유류, 조류는 물론 사람에게도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으로, 손에 상처가 난 어린이가 감염된 돌고래를 만질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다.

기본적 복지 기준도 없는 동물 체험

1990년대에 미국 해양수산부는 그간 잠시 유행했던 '돌고래와 수영하기' 시설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연구를 의뢰해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제정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고래목 동물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하루 총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최소 10시간은 돌고래가 사육사를 포함한 외부와의 접촉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일 강조한 항목은, 전시 시설은 '돌고래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중간 공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돌고래의 은신처'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돌고래가 관람객과 접촉하기 싫어할 때는 자유롭게 은신처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관람객과 돌고래의 비율은 3:1을 넘어서는 안 되며, 관람객에게는 프로그램 규칙과 설명을 들려준 뒤 안내 책자를 주어야 하고, 안내 책자에는 공연 도중 목격한 부상이나 부조리를 정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복지기준을 세웠다.

우리나라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동물 체험 전시 속에서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관람객과 돌고래, 사자, 호랑이 등 공격 습성이 있는 야생동물종이 직접 접촉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돌고래 체험은 동물 학대에도 사회적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까지 결합된 후진국형 전시 사업이다. 또 동물 체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유희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게 한다. 이미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세금을 들여 전시 돌고래를 야생 방류하는 일에 지지·동참할 정도로 성장했다. 돌고래와 사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돌고래 체험 시설, 시민들이 먼저 등을 돌려 저절로 문 닫게 만드는 날이 오길 바란다.





대한민국 누렁이의 희망 '극복이'의 견생역전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지난 2011년 5월, 오른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아래턱과 광대뼈가 부서져 선혈이 낭자한 상태로 고통에 울부짖던 황구가 구조됐습니다. 황구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다 도살을 위해 각목으로 구타당하던 중 한 방송사 취재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당시 극도의 고통에 울부짖던 황구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을 감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조된 황구는 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몸은 점점 회복됐지만 하루 종일 누워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대소변을 그대로 깔고 눕는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구조 후 앞으로는 진짜 진짜 행복하기만 하라는 의미에서 '찐자'로 불리던 황구는 얼마 후, 평생 가족을 만나 '극복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가족으로부터 큰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토종 개 황구와 누렁이에겐 너무나 가혹한 여름철입니다. 복날이 세 번이나 있는 여름철마다 복날을 핑계 삼아 개고기를 먹던 습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극복이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 개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의 산중인 극복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햇볕은 뜨겁지만 나무 밑 그늘에 누우면 선선한 바람이 코를 간질이며 이내 낮잠을 불러옵니다. 한숨 자고 나니 이내 심심해지네요. 친구들과 수풀더미로 들어가 숨습니다. 눈만 뻐꼼 내밀어 엄마는 뭐하나 염탐놀이를 합니다. 엄마가 수풀 옆을 지나가네요. 이때다!“ 왕~” 놀랬죠, 엄마? “이노무 시키들!” 소리에 냐다 줄행랑쳐 고무다라이에 달려가 몸을 담그고 사방으로 물을 튀깁니다.“ 깽-- 이노무 시키들아~” 하하하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가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을 목줄에 묶여 목줄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전부인 무료하고 슬픈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오고 가는 발길질과 썩은 음식물쓰레기에 병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복날이면 5만 원에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식용견 농장에 태어나면 평생 뜰 안에서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네요. 고라니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는데... 자신 있는데... 코에 흙 잔뜩 묻혀 가며 땀도 파보고 싶는데...

‘극복이’의 속마음 중

“언나~ 잘 지내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집에서 오늘 매일 수확한다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 애들 먼저 보고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해요. 참. 갈 때 상추도 좀 따가고~”

“ايا~ 극복이랑 애들이랑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 그냥 펜스 크게 쳐 놓고 자유롭게 뛰어 놀라고 방목하고 있어요. 저 수풀더미는 벌레도 많고 해서 베어버릴까 했는데 애들이 또 저 안에 들어가서 슬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놀아서 놀이터 하라고 그냥 뒀어요. 진드기는 매달 예방하는데 저러고들 노니까 별 소용이 없네.”

“어머~ 애가 극복이 처음 입양하실 때 얘기 강아지였던 곰순이 맞아요? 으악~ 송아지 같은 녀석들이 3마리나 붙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힘센 것 좀 봐. 무슨 콧바람이 사자 같아~”

“여봉~ 여기 동물자유연대 국장님이 큰 개를 무서워 해. 어쩌면 좋아. 깔깔~”



“극복이 입양하신 지 벌써 3년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아직도 남자를 무서워해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낯선 사람이 주는 간식은 절대 먹지 않아요. 정말 똑똑해. 일전에 한전 기사님이 내가 없을 때 마당으로 들어오셨는데 극복이를 피해 펜스 안으로 피신하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순식간에 펜스를 넘어가긴 했는데 내가 나와 보니 다시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높이였던 거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랑도 우리 집은 극복이가 다 지킨다고 엄지 척. 눈치가 빨라서 되고 안 되고를 단번에 알고, 다 커서 우리 집에 왔는데도 이름을 그렇게 빨리 알아듣는 개를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마나~ 곰순이가 고무 물통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시고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몸을 털었어요. 영영~”

“애들이 국장님 되게 좋나보다. 다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하하~”

“극복이는 여기 있던 다른 녀석들과 잘 어울리나요?”

“극복이는 다른 개들과 사이도 좋고 모성애가 뛰어나요.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뒷마를 개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특히 새끼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곰순이와 동이를 극복이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애들이 덩치가 커지고 연합으로 극복이에게 장난을 치니 요즘은 이기지를 못해. 저 녀석들은 극복이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말이죠.”

“극복이가 식용으로 길러지다 학대를 당했잖아요. 보통 키우는 개와 먹는 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요. 식용개로 혹독한 환경에서 길러졌던 극복이와 가족으로 함께 지내보니 어떠세요?”

“한 번도 먹는 개, 키우는 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 어떤 동물이든 함께 반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고통 속에 키워지는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는 걸 볼 때마다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복받쳐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형견들이 살기 힘들고 술하게 버려지고 학대 받아도 갈 곳이 없으니 너무 마음이 쓰여요. 이런 현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파급력이 큰 방송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극복이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뛰어나고 심지가 참 굳어요. 똑똑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처음 입양했을 때는 평생 묶어 길러졌으니까 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며 달리기도 못했는데 지금은 고라니보다 더 빨라요.”

“정말 극복이를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극복이를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이렇게 살려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매일 뺏으니까 요걸로 매일 엮기스 담가서 센터에 놀러갈게요~!”

“네~ 꼭 오셔야 해요. 예전 행당동 복지센터와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실 거예요. 우리 센터 큰 개들은 이리로 다 데려오고 싶단. 제가 본 가장 자유롭고 멋진 큰 개들의 삶이 여기, 바로 이곳에 있네요!”

여러분, 일을 하지도 않고, 재산이 되지도 않지만 존재 자체로 풍경이 되고 행복이 되는 반려동물.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까이 두는 이유가 아닌가요?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없이 깊은 사랑을 이제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양말을 만드는 그린블리스

글 홍소영 활동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와 인연을 맺은 그린블리스 유신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가닉 코튼(유기농 면) 양말을 만드는 그린블리스는 ‘멸종위기종’ 라인을 만들어 판매 수익 일부를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해온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유신우 대표와 함께 동물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작년에 동물자유연대에 후원을 하고 싶다고 직접 연락 주셨지요? 동물단체 후원을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관심 가진 건 4년 전쯤 일이에요. 당시 구제역이 발생해서, 돼지와 소가 ‘살처분’이란 이름으로 생매장되는 현장을 뉴스에서 보았었어요. 그 때 뉴스를 보다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돼지를 포클레인으로 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동물들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육식을 하지 않게 됐어요. 사실 과거엔 고기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릴 땐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패류 외의 고기는 먹지 않아요. 유제품 섭취도 줄이려 노력합니다. 예전엔 도둑고양이로만 여겼던 길고양이들의 삶이 이제는 안쓰럽고, 추운 날엔 어떻게 지낼까 걱정도 됩니다. 동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변화한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그린블리스 론칭을 준비하면서, 동물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죠.

후원 연락을 주신 뒤, 예쁜 그린블리스 양말을 활동가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지요? 감촉이 남다르다고들 하던데요. 홈페이지(www.greenbliss.co.kr) 설명을 보니 ‘해로움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한 끝에, 친환경 공정을 거쳐 오가닉 코튼으로 제조하는 제품이라고 써 있던데요, 친환경 공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린블리스 제품은 모두 오가닉 코튼을 사용해요. 유기농이므로 농약을 전혀 안 쓴 목화를 사용해 생산합니다. 이런 제품들과 생산을 심사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증을 해주는 오가닉 인증업체가 있어요. 심사평가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린블리스도 한국에 있는 인증업체를 통해서 오가닉 코튼 사용 여부와 생산 기준 등을 매년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좀 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블리스 제품 중 ‘멸종위기종’ 라인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하고 계신데요.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결정을 하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론칭 준비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가닉 코튼 양말 제작을 결정·진행하면서부터, ‘멸종위기종’ 라인도 함께 준비했어요. 특별히 ‘멸종위기종’을 선택한 건 사람들이 일반 동물보다는 좀 더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였어요. 그 중에서도 친근하고 귀여운 외모의 동물에 더 호감을 가질 것 같아서 판다나 북극곰, 핑크 돌고래 등을 선택해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업으로서 그린블리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스위스 브랜드인 ‘프라이탁(FREITAG)’ 제품입니다. 이 가방의 몸체 부분은 5년 이상 쓴 대형트럭 방수포로 만듭니다. 손잡이 부분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제품 로고 부분은 차량용 바퀴 고무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고요. 모든 소재가 재활용품이죠. 세척 공정도 빗물을 받은 저장 탱크를 이용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블리스의 미래도 이와 닮았어요. 저 역시 친환경 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회사가 좀 더 성장하면 ‘프라이탁’처럼 자체 생산 공장을 지어 태양열 이용 시설과 빗물 저장 설비를 갖추고 싶어요. 생산 공정까지 완전한 친환경 공장을 만드는 게 꿈이고 목표입니다. 물론 이 꿈을 실현하려면 공부와 노력이 더 필요하죠. 하하.



입양해주세요

‘똥꼬발랄’한 아기고양이 단테와 가족 되실 분?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사람 기척만 들리면 문 앞으로 뛰어 나와 ‘빨리 들어오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아기 고양이 단테. 단테는 이제 태어난 지 약 5개월 정도된 아기고양이입니다. 구조 당시 단테는 양쪽 눈에 고름이 가득했고, 심한 피부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증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치료 도중에도 단테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단테는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물자유연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테의 애교는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의 애교를 합쳐놓은 총량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명랑한지, ‘똥꼬발랄’이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아기고양이입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단테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단테가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못 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전 피부병도 다 나아서 뽀송뽀송한 털로 한껏 멋을 낸 단테가, 좋은 가족을 만나 평생 사랑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똥꼬발랄’ 아기고양이 단테의 ‘뽕뽕애교’와 함께 살아가실 분! 빨리 손들어 주세요~!

나는 모피를 참는다



먼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나는 모피를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

사실 나는 대부분의 모든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반대한다는 태도 자체가 편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는 HIV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건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HIV는 이미 지구에 태어났고, 이처럼 광범위한 전염병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HIV와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건 1. 현실을 받아들이고, 2. 그 안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피에 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고백하자면 내 어머니는 여느 중년 어머니들이 무릇 그렇듯이 모피를 좋아한다. 10여 년 전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어머어마하게 부피가 거대해서 저걸 입고 산에서 돌아다니다가는 동물로 오인한 사냥꾼의 공기총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피를 선물 받으시고는 당근을 얻은 토끼처럼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겨울에 나와 외출할 때 모피를 꺼내신다. 아들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니 가장 근사하게 갖춰 입

고 싶어서일 거다. 나는 모피를 입은 어머니의 팔짱을 낀다. 나는 어머니에게 윤리학 강의를 할 생각은 없다.

나에게도 모피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몇 벌 있긴 했다. 라쿤 한 마리의 가죽을 고통스럽게 벗겨내서 만든 털이 목둘레에 둘러진 겨울 재킷을 몇 벌이나 갖고 있었다. 나는 라쿤 털이 좋았다. 보슬보슬하게 목에 감기는 느낌도 좋았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털 내음도 좋았다.

지금은 내게 모피가 없다. 10여 년 전 모피 제조 동영상을 본 이후로 하나씩 하나씩 버리거나 남에게 줬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하고 싶다. 동영상을 본 뒤에 나는 분명히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리적 죄책감과 쾌선을 향한 열정은 쉽게 1:1로 맞바뀌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잔혹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노력해도, 그걸 본 사람들이 즉시 방으로 뛰어 들어가 모피로 된 아이템을 모조리 불태우며 모피를 입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효과는 천천히 발현된다.

나는 내일 만날 친구가 모피를 입고 온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입으로 소리 내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윤리적 역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친구가 입고 나온 디자이너 레이블의 모피 코트가 너무나 아름다워 탄성을 내지를 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모피는, 시각적으로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움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 건 도덕과 윤리에 관계없이 아름답다. 이를테면 그건 마치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입었던 군복의 아름다움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하다. 유태인인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나치를 소재로 한 영화 <발키리>를 만들었을 때, 나는 서울을 방문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물었다. “솔직히, 나치 군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물론이죠. 나치 군복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의 군복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어요.” 나치들은 차가 떨릴 정도의 학살을 자행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이 만든 군복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다. 전쟁은 나쁘지만, 군복의 의미나 실용성이 멋지게 어울려져 디자인된 군복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모피란 그런 것이다. 그건 분명히 아름답다. 사람들이

옷을 통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멈추는 날이 오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모피는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물의 가죽과 털 대신 인조 가죽이나 인조 모피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이리라. 모피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나이지만, 더 이상 모피를 구입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참고 있다. 여전히 라쿤 털이 달린 야상을 구입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행한 방식으로 도살당한 동물의 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

누구든 어떤 행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일순간에 모피를 벗어 던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숫구치는 입고 싶은 욕망을 꺾고 누르고 참아내는 것이다. 나는 모피를 참는다. 그리고, 욕망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간 지성의 승리’라고, 아주 거창하게 생각한다.

글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그림 최진영

본 원고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

2014년 3월 ~ 2014년 8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3월 11일,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 1주년을 맞아 협력단체인 'Cruelty Free International'과 함께 한국 화장품 동물실험 법적 금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불필요성과 비인도성을 알리고,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 공식 블로그 오픈

'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동물자유연대의 활동 소식과 캠페인 내용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네이버에 동물자유연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와 이웃을 맺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주위에 동물자유연대 활동도 널리 알려주세요~!



2014 초록연대 참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4 지방선거 후보들이 '초록공약'을 내세운 약속 운동 <2014 초록연대>에 참여했습니다. 초록연대 활동을 통해 지방선거 참여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앞으로 공약이 제대로 이행돼 동물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동물자유연대가 제작 지원한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가 5월 10일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돼 더욱 의미 있는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육식과 공장식 축산업 문제를 정면으로 담아내 한국환경영화경선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5월 27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 행위 또한 학대로 규정하는 것, 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 오픈 하우스 행사 및 <투게더> 바자회 개최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 보호 공간 부족으로 아직 외부 시설에 위탁 중인 19마리의 대형견을 데려 오기 위한 모금, 그리고 새로 단장한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을 소개하기 위한 <투게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후원 업체와 시민, 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전시환경 개선 요구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제주, 여수 3개점에 걸친 네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육상 야생동물의 실내전시, 소음 문제, 구조대상 해양생물 역류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복지센터 보호동물과의 특별한 입양행사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던 분들과 동물자유연대 보호동물이 만날 수 있는 입양행사가 7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아기고양이 준, 주노 남매와 강이지 딸기, 보리, 망고가 입양 가족을 찾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입양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견주에게 지속적 학대를 당한 피학대견 구조

견주는 개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을 자주 행사했고, 높이 2미터가 넘는 옥상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피학대견은 센터에서 호순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 호순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가족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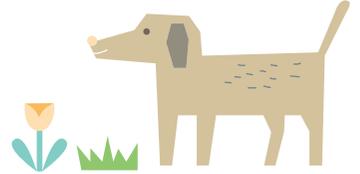
2014 동물자유연대 개 식용 반대 캠페인

개고기의 주소비침으로 인식되는 중, 장년층 사이에서도 개 식용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 개 식용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중북인 7월 28일 탑골공원 정문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개 식용 반대 인증샷 모자이크, 시민 사연 게시, 개 식용 근절 1인 캠페이너로 활동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도 산책을 좋아해요!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햇살이 한층 따가워졌지만, 햇살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햇살을 만끽하는 반려동물복지센터 아이들을 카메라로 포착해 봤습니다. 나른~한 햇살 아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애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랭이



바텔이



예쁜이



하철이



예뵤이



황순이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학대 사건 대응,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재입양, 개 식용 금지, 길고양이와의 공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장동물이 생태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식 확산 캠페인,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으로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실험동물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생체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에게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기업에게는 대체 소재 개발 및 사용을 촉구해 나가는 대중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반대합니다.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쇼, 체험전시 등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 들께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기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호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협 015-17-002592
예금주 동물자유연대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방사 1주년을 맞아
바다로 제들이 면회를
나갔다.



하지만 제들이 일행은 끝내
나타나주지 않았고, 목이 바빠져라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웃기면서도
어쩔지 약간 몽클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잘 보이는 수족관에 있던
돌고래를 기껏 풀어주고는 한번
보겠다고... 인간은 왜 이러는
거예요?

타자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돕는 행동,
힘닿는 한 크고 작은 이타심을 발휘하려는 의지 같은 건 사실 세상 곳곳에
여러 형태로 퍼져있는 것 같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여기
앉으세요!



조종사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끝까지
...

부디 모두
돌아오기를...



하나의
모자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너 먼저
입어.



동물복지 운동이란 결국
인간의 그런 이타심이 종(種)의 벽마저
넘도록 디딤돌을 놓는 일이 아닐까?

당연히 생명을 배앗아도 되는 동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아무래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말이다.



글쎄
소 돼지는
되는데
왜 개만
안 되냐고?



소 돼지
닭 오리 등등도
먹지 말아 주시면
더 좋고요.

라고까진 아직
말 못하지만
최소한 공장식 축산업은
좀 없었습시다.

무엇이 어째
?!?!

